

문법성과 문법 모델링: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의 변이형을 중심으로*

조 세 연
(강원대학교)

Cho, Sae-Youn. 2011. Grammaticality and Grammar Modelling: Variation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Linguistic Research* 28(2), 289-309. It is a well-known fact that grammar modelling for the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construction is never easy due to too many variations in the construction; nevertheless, there are at least 3 grammar models for this construction, such as Kim & Sag (2006, 2007), Kim (2008) and Cho (2010) in Formal Syntax. Though each model accounts for some subset of the construction data, they all seem to face empir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mainly due to the difficulty of deciding the grammaticality of controversial data. Consequently, they have to hold somewhat different grammar models, which appear to be counter-intuitive. To judge which model is better among the 3 models and to see which is the most optimal model for the construction, we will provide statistical results of 21 native speakers' grammatical judgments for 9 controversial data, and we will discuss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difficulties of modelling the grammar of the construction. Throughout this paper, we will argue that we must assume a larger set of grammatical sentences than previous analyses and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LP rules, redundancy, and intervention effects to postulate an optimal grammar model for the construc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Grammaticality, Grammar Modelling,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Variations, Constructions, Linear Precedence (LP), Redundancy, Intervention Effects, Formal Syntax

1.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론은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우선 관찰하고, 그 관찰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성을 포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문법학자들이 자연언어의 다양한 문법현상을 연구할 때, 해

* 본 논문을 읽고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오류나 부족한 부분은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0년 5월 15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언어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와 2010년 10월 16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밝히둔다.

당 현상에 관한 언어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 또는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 역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론과 유사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형식 문법론 (Formal Syntax)에서는 ‘문법 모델링(Grammar Modell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문과 비문을 포함한 언어자료와 설명이론의 타당성(justification)과 적절성(adequacy)이다 (Chomsky(1965;18)). 환언하면, 해당 언어현상에 관한 최적의 문법 모델링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수집한 언어 자료의 정·비문에 관한 판단이 타당하고 적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이러한 언어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은 기존 분석법의 경우는 대부분 문법을 모델링하는 (모국어 화자)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동일 현상에 관한 데이터의 문법성(Grammaticality) 판단에서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부터, 종래에는 객관성(objectivity)을 더욱 확보한다는 이유로 소위 “코퍼스 기반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나 음성자료의 필사본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데이터 문법성의 객관성을 위한 새로운 근원들이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력을 진정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질의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최근 동일 언어현상에 관하여 문법성 판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결과로 상이한 문법 모델들을 제시하게 만든 영어 목적어 외치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구문을 그 예로 언어 자료의 문법성과 문법 모델링에 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의 목적어 외치란 예문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어에 하나의 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목적어의 원래 자리에 허사 *it*을 두고 목적절을 그 문장의 끝에 존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1) I blame *it* on you [*that we can't go*].

그러나 이 현상의 문제는 동사 *blame*이 핵어인 위 문장에서 허사 *it*이 존재하지 않거나, 심지어 목적어절과 전치사구 *on you*의 어순이 바뀌는 경우의 문장이 (2)에서처럼 완전한 비문으로 모국어 화자들이 판단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2) a. ?I blame on you [*that we can't go*].

b. ?I blame [*that we can't go*] on you.

일단 (1)을 정문으로 간주하고서 (2)를 전부 비문으로 보는 이론은 (2a)나 (2b)를 정문으로 보거나 (2a-b)를 전부 정문으로 보는 이론과는 전혀 다른 문법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둘째, 동사 *expect*가 핵어인 예문 (3)의 경우 허사 *it*의 존재 여부가 정·비문을 결정하는지 또는 목적절과 전치사구간의 어순이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견해를 달리한다.

- (3) a. ?Nobody expected (*it*) of you [*that you could be so cruel*].
b. ?Nobody expected [*that you could be so cruel*] of you.

셋째, 동사가 *think* 유형인 예문 (4)나 *love* 유형인 예문 (5)의 경우 역시 허사 *it*의 존재 여부가 정·비문을 결정하는지 또는 목적절과 여타 표현의 존재 여부가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 (4) a. John thought (?*i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b. ?John thought [*that we had betrayed him*] to himself.
(5) ?I just love (*it*)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현재까지 상이한 문법성의 판단에 기인한 영어 목적어 외치구문을 위한 문법 모델은 핵어 중심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론 내에서만도 Kim & Sag (2006, 2007), Kim (2008) 그리고 Cho (2010) 세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 (Pollard & Sag (1994), Sag et al. (2003) 참조).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언어현상에 관한 이러한 서로 다른 문법 모델들 중에서 어떤 이론모델이 더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가장 최적의 문법 모델 구축을 위해 해당 구문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지를 연구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모국어 화자 21명을 대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언어 데이터 9개에 관해 정·비문을 판단하게 하여 그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아래의 연구 의제에 답하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¹

(6) 연구 의제 (Research Questions)

I-1. 영어의 *blame*과 *expect* 동사 유형에 따라 허사 *it*의 존재 여부가 해

¹ 본 설문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은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로서 최소 학부 학위 이상이며, 영어 관련 전공자들이다. 이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응해 준 교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W. Bottiger, J. Lundahl, W. Harrell, O. Komintas, B. Fair, T. Steigerwalt, G. Sawyer, R. Marcil, K. O'Donnell, T. Cole, T. Darden, P. King, K. Dang, P. Lunellr, S. C. Lyle, D. Brickman, E. Smith, B. B. Burrows, R. Freer, Sean, Rainer. 더불어 코퍼스 데이터의 점검과 설문 조사 및 통계 처리에 도움을 준 김상관과 오지은에게 또한 감사를 표명한다.

당 현상의 정·비문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가?

I-2. 만약 I-1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치사구의 술어성 여부 (즉 PP[+/-PRD(predicative)]) 또는 전치사구와 목적절 간의 어순이 정·비문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가?²

II-1. 영어의 *think*와 *love* 동사 유형에 따라 허사 *it*의 존재 여부가 해당 현상의 정·비문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가?

II-2. 만약 II-1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 동사 유형에 있어서 정·비문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가?

III. 상기한 질문들의 답에 따라 기존분석 모델은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해 현상을 위한 최적의 문법 모델링이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상기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바탕으로 영어 목적어 외치 현상은 원칙적으로 절을 문미로 존치시키되 수의적인 허사 *it*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어순 (Linear Precedence), 간섭효과(Intervention Effects), 잉여성(Redundancy)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구문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형식문법이론 하에서 구축된 기존의 세 가지 분석법인 Kim & Sag (2006, 2007), Kim (2008) 그리고 Cho (2010)을 소개하고, 각 문법 모델들이 달리 설정되도록 만든 문제의 데이터를 적시한다. 3절에서는 이러한 문제 데이터들에 관한 모국어 화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모국어 화자 간에 왜 문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논의를 하고 기존의 분석법들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3절의 논의를 근간으로 영어 목적어 외치 현상을 위한 최적의 문법 모델링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2. 기존 분석 모델들

영어의 목적어 외치 구문은 Bolinger (1977) 이래로 Authier (1991) 등을 포함한 생성문법 이론 틀 내에서 경험적(empirical)으로나 이론적(theoretical)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언어현상이다. 수학적 명시성을 중시해 온 형식문법이론 중의 하나인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틀 내에서도 당해 현상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형식연구의 대표적 연구로는 Kim & Sag (2006, 2007),

²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술어성 (Predicative) 또는 비술어성 (Non-predicative) 전치사구라는 표현은 Kim & Sag (2006, 2007)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

Kim (2008) 그리고 Cho (2010)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대표연구의 각각의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문법 모델 I: Kim & Sag (2006, 2007)

우선 경험적으로 Kim & Sag (2006, 2007)의 분석법의 요체는 영어 목적어 외치구문을 허사 *it*의 존재가 필수적인지 수의적인지로 구분하는데 있다. 환언하면, 해당 구문에서 (7)처럼 허사 *it*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 1 그룹, (8)처럼 수의적인 경우는 제 2 그룹, 그리고 (9)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제 3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7) 제1그룹: I blame **(it)* on you [that we can't go].

(8) 제2그룹: Nobody expected (it) of you [that you could be so cruel].

(9) 제3그룹: John thought (?i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상기한 분류법을 채택한 경험적 근거로는 Kim & Sag (2006, 2007)은 저자들의 직관뿐 아니라 ICE-GB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 Great Britain)와 BNC (British National Corpus) 코퍼스의 예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들이 제시한 이 분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 (10)의 동사유형 *blame*은 (10b)에서 보인 것처럼 허사 *it*이 목적어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면 비문으로 간주되고, 술어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 *on you*와 *that*절의 어순이 도치되어도 (10c)처럼 역시 비문이라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11)의 동사 *expect* 유형은 (11b)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허사 *it*이 없어도 정문이 되지만 술어 기능이 없는 전치사구 *of you*가 *that*절에 비해 후행하면 (11c)처럼 비문이라 판단했다.

(10) a. I blame it on you [that we can't go].

b. *I blame on you [that we can't go].

c. *I blame [that we can't go] on you.

(11) a. Nobody expected it of you [(that) you could be so cruel].

b. Nobody expected of you [(that) you could be so cruel].

c. *Nobody expected [(that) you could be so cruel] of you.

따라서 이러한 문법성 판단에 의거하여 동사유형 *blame*은 허사 *it*이 필수적이며 *expect* 유형은 수의적이라 간주하였고, 어순에서는 (10b)와 (11b)의 문법성 차이를 근간으로 술어성 전치사구(*on you*)는 *that*절에 후행하고 비술어성 전치사구

(*of you*)는 선행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think* 유형의 동사는 (12a)처럼 허사 *it*이 있으면 문법성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12b)처럼 오히려 허사가 없으면 문법적인 문장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 (12) a. ?John thought i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b. John though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예문 (12a)의 문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저자들은 인터넷 상의 데이터인 (13)을 제시하며 문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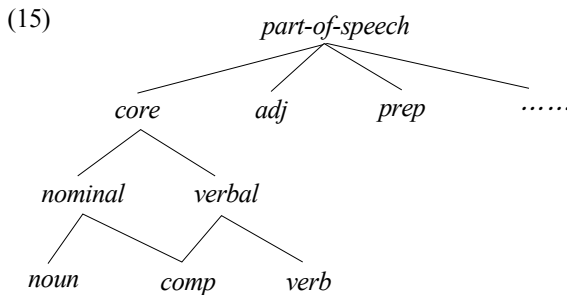
- (13) ... and I think it's great when Nessa says (**or maybe she just thinks it to herself**) that Eyvind, unlike Somerled, is wise.

Kim & Sag (2006)

그러나 *love* 유형동사인 *like*에 관해서는 (14)에서처럼 허사 *it*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비문으로 간주하면서 제 1 그룹 또는 제 2 그룹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세한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 (14) I like *(it) that she has good manners.

상기한 바와 같은 문법성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기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Kim & Sag이 제안한 동사 유형에 따른 분류를 좀 더 쉽게 기술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영어 품사들을 아래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계층화 하였다.



Kim and Sag (2007;3)

제시된 품사 계층화는 어휘부에서 하위범주화에 관한 정보를 기술할 때 경제성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어의 동사 *pinch*, *hope*, 그리고 *prove*는 (16-18)에서 보이는 하위범주화의 특성을 갖는다.

- (16) a. She pinched [his arm] as hard as she could.
 b. *She pinched [that he feels pain].
- (17) a. We hope [that such a vaccine could be available in ten years].
 b. *We hope [the availability of such a vaccine in ten years].
- (18) a. Cohen proved [the independence of the continuum hypothesis].
 b. Cohen proved [that the continuum hypothesis was independent].

Kim & Sells (2008;94)

상세히 말하면, 동사 *pinch*는 목적어로서 명사구만을 취하고, *hope*는 *that* 절만을 취하며 *prove*는 *that* 절과 명사구를 둘 다 취할 수 있다. 이를 어휘정보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9) a. pinch: [SUBCAT<NP, NP[HEAD *noun*],...>]
 b. hope: [SUBCAT<NP, CP[HEAD *comp*],...>]
 c. prove: [SUBCAT<NP, [HEAD *nominal*],...>]

품사 계층화에 따라 *prove*를 위한 어휘정보 (19c)에서는 NP 또는 CP라는 표기 대신에 *nominal*이라고만 표기하여도 그 결과는 같게 되는 경제성이 생긴다고 하겠다.

상기한 기재와 더불어 Kim & Sag은 외치구문을 위하여 (20)과 (21)의 구문 규칙을 제시한다.

- (20) 외치 구문 규칙 (Extraposition Construction; Kim & Sag (2007;6))

$$\left[\begin{array}{l} \text{MTR} \left[\begin{array}{l} \text{PHON} \boxed{0} \\ \text{S} \mid \text{C} \left[\begin{array}{l} \text{SUBCAT } \boxed{A} \oplus \langle \text{NP}[it] \rangle \oplus \boxed{B} \\ \text{EXTRA} < \boxed{1} >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DTRS} \left\langle \left[\begin{array}{l} \text{PHON} \boxed{0} \\ \text{S} \mid \text{C} \mid \text{SUBCAT } \boxed{A} \oplus \langle \boxed{1}[\textit{verbal}] \rangle \oplus \boxed{B} \end{array} \right] \right\rangle \end{array} \right]$$

(21) 핵어-외치 구문 규칙 (Head-Extraposition Construction)

$$\left[\begin{array}{l} \text{MTR} \quad \left[S \mid C \mid \text{EXTRA} < > \right] \\ \text{DTRS} < \boxed{0}, \boxed{1} > \\ \text{H-DTR} \boxed{0} \quad \left[S \mid C \left[\text{SUBCAT} <(X)> \text{EXTRA} <\boxed{1}> \right] \right] \end{array} \right]$$

위 규칙들의 기능은 쉽게 말하자면, 핵어가 하위범주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목적어 자리에 *verbal* 범주 즉 *S*, *CP*, *VP* 등이 요구되면 그 범주는 *Extra* (외치)자리에 나타나고 원래의 목적어 자리는 허사 *it*으로 채우라는 규칙이다.³

또한 문장 표현간의 어순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순을 설정하고 있다.

(22) 영어 어순제약 (English Linear Precedence Constraints)

LP1: Hd-Dtr[word] < X

LP2: [1] < [SYN|CAT|SUBCAT <[1]>]

LP3: NP <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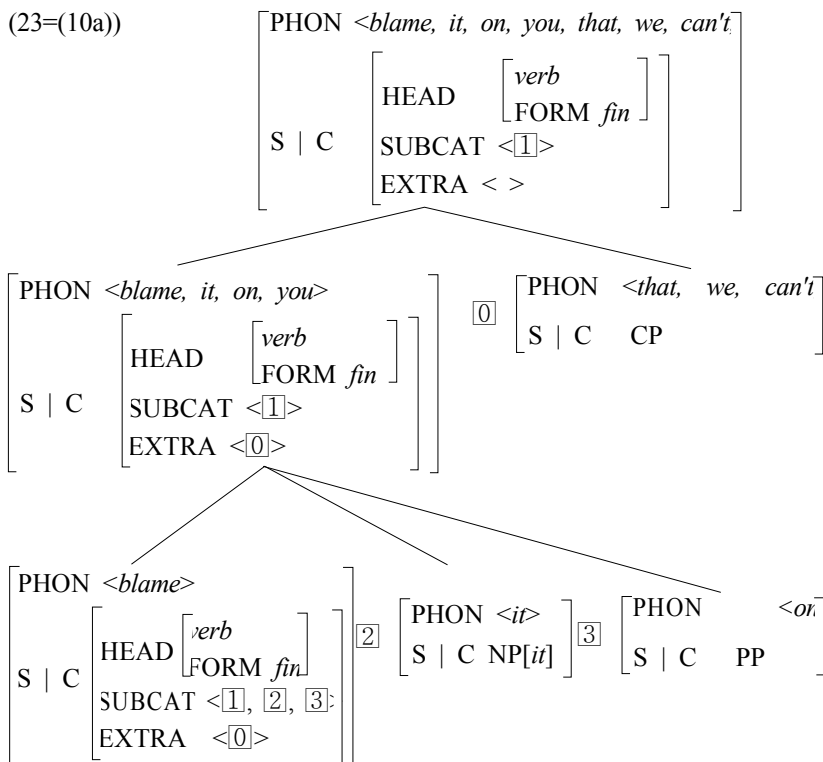
LP4: Complement < [SYN|CAT|HEAD *verbal*]

Kim & Sag (2007;4-5)

(22)의 어순 규칙을 간략히 설명하면, LP1은 어휘 핵어는 모든 범주를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LP2는 술어 기능의 범주는 모든 범주에 후행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LP3는 명사구는 전치사구를 선행해야 하고 LP4는 보어는 *verbal* 범주를 선행해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상기한 품사위계, 외치 구문 규칙과 핵어-외치 구문 규칙, 그리고 어순 규칙과 같은 이론 기재를 바탕으로 Kim & Sag은 각 동사 유형에 따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이론 하에서는 제 1 그룹인 *blame* 유형의 예문 (10a)를 위한 분석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³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목적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주의 대상을 CP만으로 한정하고 논의한다.



Kim & Sag (2007)

상세히 설명하면, (10a)는 허사 *it*이 필수적이어서 (20-21)의 외치 구문과 핵어-외치 구문 규칙에 필수적인 적용을 받아 (23)처럼 수형도가 제시 되고 각 범주의 어순은 (22)의 어순 규칙의 정의에 따라 정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Kim & Sag의 판단이 모두 비문으로 간주되는 (10b-c)는 각각 LP2와 LP4의 규칙을 위배하여 비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제 2 그룹인 *expect* 유형의 예문 (11a-b)는 허사가 임의적이어서 허사가 존재하는 (11a)나 허사가 없고 전치사구 *of you*가 *that* 절을 선행하는 경우의 (11b) 둘 다 어순 규칙을 준수하기에 정문으로 판정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11c)의 경우는 *that* 절이 보어인 비술어성 전치사구를 선행하므로 LP4의 정의에 따라 비문이 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제 3 그룹인 *think* 유형의 예문 (12)의 경우는 제 2 그룹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예문 (11)과 동일한 방법의 설명으로 같음한다. 단, Kim & Sag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love* 유형은 상기한 그룹과는 달리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요약하면 Kim & Sag (2006, 2007)은 경험적으로는 ICE-GB 등의 코퍼스 기반 및 인터넷의 글과 음성자료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동사 유형을 처음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결국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love* 유형은 따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 기재로는 동사 유형의 분류상 목적어 자리를 *verbal* 범주로 한정하고 외치 규칙을 설정하여 분석하되 어순 규칙이 중요한 작동을 하는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2.2 문법 모델 II: Kim (2008)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틀 내의 해당 현상에 관한 두 번째 문법 모델링 양식은 Kim (2008) 이다. Kim의 분석법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첫 번째 모델인 Kim & Sag (2006, 2007)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Kim의 분석법을 Kim & Sag의 분석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Kim (2008)의 분석법의 핵심은 아래에 저자 자신이 제시한 바와 같은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에 관한 규칙에서 잘 나타나 있다.

(24)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Rule (영어 목적어 외치 규칙)

Verbs selecting a *nominal* can undergo *it* object extraposition. The placement of *it* is optional if the post-expletive phrase is non-predicative.

Kim (2008;127)

환언하면, 목적어 자리에 NP 또는 CP와 같은 *nominal* 범주를 취하는 동사들은 목적어 외치가 가능하다고 보며, 허사 *it* 다음에 나타나는 구가 비술어성 범주이면 그 허사는 수의적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목적어 자리가 CP로 될 수 있는 경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바 *verbal* 이든 *nominal* 이든 일단 차이는 없다. 문제는 (24)의 두 번째 문장이 의도하는 바는 결국 Kim & Sag (2006, 2007)과 유사하게 제 1 그룹인 *blame*은 허사 *it* 다음에 술어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가 나타나므로 허사가 필수적이고, 제 2 그룹인 *expect* 유형은 허사 다음에 비술어 전치사구가 나타나므로 허사가 수의적임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Kim의 분석법은 Kim & Sag의 분석법과 같이 경험적으로 제 1 그룹(필수)과 제 2 그룹(수의) 두 부류로 구분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험적 차이는 *think* 유형의 소위 제 3 그룹을 Kim & Sag에서는 제 2 그룹으로 흡수시킨 반면에 Kim (2008)에서는 Bolinger (1977)의 직관력을 원용하여 아래

와 같이 Kim & Sag의 분석법과는 달리 (25a)를 비문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제 3 그룹으로 간주하고 있다.

- (25) a. *John thought i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b. John thought to himself [that we had betrayed him].

또 다른 차이는 *love* 유형의 그룹을 특수한 경우로 보고 아래와 같이 허사 *it*이 존재하면 정문이나 허사가 없으면 비문으로 간주한다.

- (26) a. I like it that she has good manners.
b. *I like that she has good manners.

상기한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Kim은 동사 유형에 따른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 규칙을 설정하여 세 가지의 그룹을 Kim & Sag (2006, 2007)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허사 *it*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이 분석법 역시 어순 규칙을 이용하여 정문과 비문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 특이한 것은 *love* 유형의 동사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27)
- $$\left[\begin{array}{l} \langle \text{love} \rangle \\ \text{ARG-ST} \langle \text{NP},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langle \text{love} \rangle \\ \text{ARG-ST} \langle \text{NP}, \text{NP}_i[\text{NFORM } it], \text{CP} \rangle \end{array} \right]$$
- Kim (2008;129)

상기한 어휘 규칙은 *love*처럼 목적어를 NP로 취하는 2항 술어는 목적어에 허사 *it*을 존치시키고 문미에 동일 지표(Index)를 갖는 CP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는 규칙이다.

요약하면 Kim (2008)은 경험적으로는 부분적으로 ICE-GB 등의 코퍼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전 분석의 저자인 Bolinger (1977)의 직관력을 동원하여, 동사 유형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love* 유형은 따로 어휘 규칙으로 설명하는 분석법이다. 이론 기제로는 동사 유형의 분류상 목적어 자리에 *nominal* 범주로 한정하고 *love* 유형 동사를 위한 어휘 규칙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Kim & Sag과 유사한 외치 규칙을 필수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되, Kim & Sag이 제시한 4 가지의 어순 규칙이 중요한 작동을 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2.3 문법 모델 III: Cho (2010)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에 관한 형식 문법론내의 세 번째 문법 모델링의 예는 Cho (2010)이다. Cho의 분석법은 경험적으로 소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을 바탕으로 이전 분석 모델과는 차별성 있는 문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Cho는 이전 분석법과는 달리 영어 목적어 외치 현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일반성을 제시하고 있다.

(28) 목적어 외치의 데이터 일반성

(The Data Generalization on Object Extraposition)

All English verbs selecting CP object basically allow object extraposition. Seemingly optional or obligatory cases of object extraposition with respect to the occurrence of *it* are not due to the different classes of verbs but due to the LP constraints. The additional extraposition cases including *love*-type verbs are also not the case requiring another lexical rule but a subcase of object

extraposition generated by the same general extraposition rule. Cho (2010;60-61)

상기한 해당 현상에 관한 일반화는 이전의 두 모델과는 달리 목적어 자리에 일단 CP가 실현되기만 하면 *blame*, *expect*, *think* 유형에 관계없이 허사 *it*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고 CP는 문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Cho는 더불어 *love* 유형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허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소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을 바탕으로 정문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 유형 역시 타 유형과 같은 일반화의 하위 타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29) I just love (*it*)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이론적으로 Cho는 상기한 일반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위 목적어 외치 어휘 규칙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30)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고, 범주간의 어순을 위해서는 Kim & Sag의 네 가지 어순 규칙 중에서 LP1, LP2, LP3은 그대로 수용하되 LP4는 (31)처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30) 목적어 외치 어휘 규칙 (Object Extraposition Lexical Rule)

$$\left[\begin{array}{l} \textit{pi-rule} \\ \text{INPUT} \quad \left\langle X, \left[S \mid C \mid \text{SUBCAT} \langle \boxed{1}, \boxed{2}CP_i, \boxed{3} \rangle \right] \right\rangle \\ \text{OUTPUT} \quad \left\langle Y, \left[S \mid C \left[\begin{array}{l} \text{SUBCAT} \langle \boxed{1}, NP_i[\text{NFORM } it], \boxed{3} \rangle \\ \text{EXTRA} \langle \boxed{2} \rangle \end{array} \right] \right] \right\rangle \end{array} \right]$$

(31) 수정 어순 규칙 4 제약 (Modified LP4 Constraint)

Non-predicative Complement < [SYN|CAT|HEAD *verbal*]

Cho (2010;61)

상기한 두 개의 이론 기재를 바탕으로, Cho는 이전 모델에서 논의의 대상이었던 *blame* 유형의 예문 (10b)에서 술어기능을 하는 전치사구(*on you*)가 *that* 절을 선행하는 경우는 LP2의 정의에 의해 비문으로 *expect* 유형의 예문 (11b)에서 비술어성 전치사구(*of you*)가 *that* 절을 선행하는 경우는 수정된 (31)의 LP4에 의하여 정문으로 판정하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Cho의 분석법에서는 (12)의 *think* 유형이나 (14)의 *love* 유형 모두 정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0)의 목적어 외치 어휘 규칙에 의해 정문으로 생성될 수 있다.

요약하면 Cho (2010)는 경험적으로 소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만을 바탕으로 기존 분석법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분류했던 접근법을 단순화하여 단지 목적어 자리에 CP가 실현될 수만 있으면 목적어 외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소위 목적어 외치 어휘 규칙을 설정하고 각 범주간의 어순은 기존 분석의 LP1-3을 수용하되 LP4는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2.4 기존 문법 모델간의 비교

위에서 소개한 기존 분석 모델들을 좀 더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각 모델별로 문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모집 방법, 이론적 기재, 그리고 모델간의 차이를 가져온 데이터 분류를 아래의 도표로 요약한다.

(32) 문법 모델별 비교표

	문법 모델 I	문법 모델 II	문법 모델 III
데이터 소스	코퍼스 및 인터넷	코퍼스 및 기존자료 (예;Bolinger(1977))	모국어화자 (5인)
이론적 장치	품사위계	품사위계	
	외치구문규칙	외치구문규칙	외치어휘규칙
		<i>love</i> 어휘규칙	
	어순규칙(LP1-4)	어순규칙(LP1-4)	어순규칙(LP1-4)
데이터 분류	1, 2, <i>love</i> 그룹	1, 2, 3, <i>love</i> 그룹	단일 그룹

상기한 바와 같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틀 내에서 제안되었던 세 가지의 문법 모델은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에 따라 이론적 장치에서부터 데이터의 분류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문법 모델링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제 데이터의 문법성과 핵심 요인들

3.1 문제 데이터의 문법성 직관조사 방법 및 결과 통계

제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이한 문법 모델 구축을 촉발한 데이터 수집과 그에 입각한 문법성의 판단에 관한 타당성과 적절성은 해당 구문에 관한 최적의 문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점검해 보아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를 재점검하기 위하여서는 기존 문법 모델들이 달리 구축되게 촉발한 결정적인 요인인 문법성의 판단에서 이견이 표출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들의 문법성을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본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각 이론 모델들이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력을 담아내는 문법성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견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 9개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였다.

(33-36) 문제의 데이터

(33) a. I blame that we can't go on you.

b. I blame on you that we can't go.

(34) a. Nobody expected that you could so cruel of you.

b. Nobody expected of you that you could so cruel.

- (35) a. I think it that John had an accident.
 b. I thought it that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for the filmmakers
 to sustain such a level of excitement through the rest of the
 movie.
 c. John though it to himself that Mary was coming.
- (36) a. I just love it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b. I just love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이상의 데이터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 모델 I인 Kim (2008)에서 각각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 바가 있으며, 문법 모델 II인 Kim & Sag (2006, 2007)에서는 (33), (34-35), 그리고 (36)의 세 가지 다른 유형으로 간주된 바가 있다. 이와는 달리 Cho (2010)에서는 모두 같은 타입으로 취급하고 있다.

위의 추출된 데이터들에 관한 문법성의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고는 소수로 구성된 Cho (2010)의 설문 집단보다 확대한 21명의 모국어 화자 집단에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별로 아래와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⁴

(37) 문제의 데이터에 관한 문법성 통계처리(%)

데이터	(33a)	(33b)	(34a)	(34b)	(35a)	(35b)	(35c)	(36a)	(36b)
정문	43	38	10	67	43	56	52	90	95
비문	43	33	71	24	38	17	24	0	0
미정	14	29	19	10	19	28	24	10	5

상기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각 예문들의 문법성에 관한 판단이 모델별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겠다.

3.2 직관조사 통계 지표와 문제 데이터의 요인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 9개는 문법 모델링 I (Kim (2008))이나 문법 모델 II (Kim & Sag (2006, 2007))에서 제시했던 데로 (33)-(36)의 네 가지 패턴을 하나씩 차례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소위 *blame* 유형 동사의 (33a-b) 예문에서 두 문장은 문법 모델 I과 II에

4 실시한 설문지의 모형은 본 논문의 뒤에 첨부한 Appendix를 참조.

서 허사 *it*이 필수적이기에 모두 비문으로 간주 했다. 이에 비하여 문법 모델 III (Cho (2010))에서는 (33a)는 LP2에 의하여 정문으로 판단되고, (33b)는 비문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당 구문은 (37)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두 문장은 모두 정문이라는 모국어 화자의 수나 비문이라 보는 모국어 화자의 수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제시하는 바는 적어도 (33)의 경우 허사의 존재 유무가 정문과 비문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면 미정인 수치까지 고려할 때 과연 57%가 긍정적인 답을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어순에 관한 부분에서 고려해 보면, 세 가지 모델이 모두 설정하고 있는 LP2 즉 서술 기능을 하는 범주는 CP를 포함한 모든 범주에 후행한다는 규칙은 (33a)와 (33b)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듯하다. 간추리면, *blame* 유형에서 허사가 빠진 경우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비문으로 보는 모델 (즉 문법 모델 I과 II)을 선택하여 협의의 정문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정문으로 보되 LP2를 개인별 변인의 규칙으로 삼는다면(문법 모델 III 참조) 광의의 정문을 추구할 수도 있겠다. 결국 *blame* 유형의 경우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로 *expect* 유형의 예문인 (34a-b)는 *blame* 유형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통계 수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환언하면, (34a)처럼 비서술성 전치사구가 *that* 절을 후행하면 10%의 정문 판단이 내려지는 반면에 (34b)처럼 그 어순이 바뀌면 70%가 정문으로 판단함으로써 세 모델이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LP4가 비교적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문에 관한 통계 수치에 맞게 정확히 어순 규칙이 설정된 것은 비서술성 보어가 CP를 선행한다고 규정한 수정된 LP4를 채택한 문법 모델 III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문법 모델 I이나 II가 가정하는 LP4는 모든 보어가 *that* 절을 선행한다는 어순 규칙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어순 관계를 지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⁵

셋째로 *think* 유형 동사의 이견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 (35)의 예문들에 관한 통계 수치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지하다시피, 문법 모델 II (Kim (2008))에서는 (35a-b)는 비문으로 (35c)는 정문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문법 모델 II의 예측과는 달리 (35b)를 정문으로 보는 수치가 (35a)나 (35c)보다 많게는 13%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문법 모델 I (Kim & Sag (2006, 2007))이나 III (Cho (2010))이 제안한 (35) 예문 모두를 정문으로 보는 견해가 적절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따

⁵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당 구문에서만 적절하며, Kuno (1987)의 BNFC (Ban on Non-sentence Final Clause) 제약을 원용하고 있는 문법 모델 I이나 II의 LP4는 영어의 타 구문들에서는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라 나오는 질문은 예문 (35a)는 미정을 제외하고 명확히 정문으로 보는 경우는 43%인데 반해 (35b-c)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정문으로 판단하는 모국어 화자가 50%를 상회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따르면 43%를 상회하는 (35a) 예문은 동사 뒤에 바로 *that* 절이 오는 경우 그 사이에 허사 *it*이 존재하는 것을 대단히 잉여적(Redundant)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⁶ 또한 미정의 수치를 제외하고도 50% 이상이 정문으로 판정한 (35b-c)의 경우는 Bolinger (1977) 등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35b)의 *that* 절처럼 긴 절을 내포하거나 (35c)처럼 전치사구나 조동사 등의 요소들이 간섭 효과(Intervention Effects)를 유발하는 경우는 문법성이 크게 호전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은 다분히 인간의 인지 작용 중의 하나인 프로세싱 효과 (Processing Effects)이므로 일단 관련 예문들을 문법적으로 간주하고, 언어 외적인 현상이 연계된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love* 유형에 해당되는 예문 (36)의 경우는 문법 모델 I이나 II는 공히 허사가 있는 (36a)는 정문으로 허사가 없는 (36b)를 비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문법 모델 III은 예문 (36a-b) 둘 다를 정문으로 간주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법 모델 II에서는 예문 (36a)를 설명하기 위하여 *love* 유형 동사만을 위한 어휘 규칙을 따로 설정하였지만, 이 어휘 규칙 입력부의 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타동사인 *kick*과 같은 술어는 왜 예문 (38)에서처럼 허사 *it*이 나타나는 외치 구문이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8) *John kicked it that the ball flew away.

그러나 문법 모델 III에서는 예문 (36b)를 정문으로 간주하여 목적어 자리에 CP가 올 수 있으면 당연히 목적어 외치 규칙의 입력부가 될 수 있어 정문인 (36a)를 생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love* 유형에 관한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타당성은 (37)에서 제시한 통계 수치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예문 (36)에 관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허사가 없는 (36b)가 95%로 허사가 있는 경우의 (36a)보다 5%나 높다. 이는 문법 모델 III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예측되나 문법 모델 I이나 II에서는 의외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간의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에 있어서의 문법성에 관한 논란은 *blame*의 유형에서 허사 *it*이 임의적이냐 필수적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이는 반면, 그 외의 동사 유형들은 모두 임의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다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근거한 통계 수치로 확인

⁶ (35a)를 비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들과의 개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임.

가능하였다. 단지 얼마간의 문법성에 관한 이견은 *expect* 유형의 동사인 경우는 어순 규칙이 관련되어 있으며, *think* 유형의 경우는 간접 효과 및 잉여성 등의 프로세싱 효과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love* 유형의 경우는 통계 수치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허사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정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비교적 큰 모집 집단의 설문조사에 의거한 문법성 점검으로 기존의 세 모델을 비교하자면, 문법 모델 II (Kim (2008))는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에 관하여 협의의 정문 개념을 적용하여 해당 구문의 정문의 집합을 가장 축소한 모델링을 구축한 셈이며, 모델 I (Kim & Sag (2006, 2007))은 제 3 그룹 (*think* 유형)을 제 2 그룹으로 흡수한 부분은 직관력에 부합하지만 *love* 유형이나 제 1, 2 그룹의 일부 예문에 대하여 비문 처리한 부분은 역시 적절한 정문의 집합을 생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비하여 문법 모델 III (Cho (2010))은 외치의 가능성을 타 모델과 달리 더 열어둠으로써 해당 구문에 관한 적절한 정문의 집합을 다소 확장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직관력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처럼 문법성에서 이론의 여지가 많은 언어 현상을 위한 최적의 문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문제의 데이터에 관한 문법성을 판단할 때 문법적인 문장의 집합을 비교적 확장 하되 (즉 광의의 정문 개념을 준수 하되), 정문의 집합에 속하는 문장들의 어색함은 개인별 어순 규칙의 변인이나 언어 프로세싱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통계 수치에서 보여준 복잡한 문법성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이라 믿는다.

4. 결론

영어의 목적어 외치 구문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정확히 표현하는 문법 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언어 현상으로 잘 알려져 왔다. 본고에서는 해당 구문의 분석이 난해한 중요한 이유는 그 구문을 위한 적절한 정문의 집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 본다. 이러한 이론의 여지가 많은 문법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내에서만도 Kim & Sag (2006, 2007)은 ICE-GB 등의 코퍼스, 인터넷 상의 글이나 음성 필사본을 언어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삼았고, Kim (2008) 역시 코퍼스 및 Bolinger (1977)의 직관을 원용하였다. 이에 비해 Cho (2010)은 소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바탕으로 해당 구문의 문법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언어자료의 근원은 해당 구문에 관한 상이한 정문의 집합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일 언어현상에 관한 매우 다른 종류의 문법 모델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본고는 이러한 모델들이 과연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국어 화자 21명에게 문제의 데이터에 관한 문법성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허사 *it*의 존재 유무를 정문과 비문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안한 문법 모델 I이나 II (즉 Kim & Sag (2006, 2007)와 Kim (2008))는 *blame* 유형에서는 선택의 문제 정도로, *expect*, *think*, *love* 등의 동사 유형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오히려 직관력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면 문법 모델 III (즉 Cho (2010))은 대부분의 경우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과 부합한 듯이 보이거나 일부 예문에서는 정문의 집합을 어느 정도 확대한 부분이 있었다. 결국 본고에서 제시한 통계 수치는 영어 목적어 외치 구문을 위한 최적의 문법 모델링을 할 때에는 정문의 집합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되 이견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의 문법성은 개인별 어순 규칙의 변인, 간접 효과와 잉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 외적인 프로세싱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언어 현상에 관한 적절하고도 타당성 있는 문법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이 정확히 표출된 문법성 판단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타당하고 적절한 문법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 해당 현상을 위한 합당한 정문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ICE-GB와 같은 코퍼스가 기반이 되었던 인터넷상의 자료가 기반이 되었던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모국어 화자이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대상 구문을 위한 최적의 문법 모델 구축은 가능한 한 다수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력에 기초한 문법성 판단을 중시하여야 하며, 이견의 여지가 있는 언어 자료는 언어 외적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Authier, Marc. 1991. V-Governed Expletives, Case Theory, and the Projection Principle. *Linguistic Inquiry* 22(4): 721-740.
- Bolinger, Dwight. 1977. *Meaning and Form*. Harlow: Longman.
- Cho, Sae-Youn. 2010. Toward a Unified Constraint-Based Analysis of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14(1): 49-66.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im, Jong-Bok and Ivan A. Sag. 2006.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Proceedings of the HPSG05 Conference. CSLI*.

- Kim, Jong-Bok and Ivan A. Sag. 2007. Variation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Proceedings of the 41st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1-15.
- Kim, Jong-Bok. 2008. Grammatical Interface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Studies in Language* 25(3): 117-131.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8.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 Kuno, Susumo. 1987. *Functional Synta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Publications.
- Sag, Ivan, Tom Wasow, and Emily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2nd Edition. CSLI Publications.

조세연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sycho@kangwon.ac.kr

접수일자: 2011. 07. 14

수정일자: 2011. 08. 09

게재일자: 2011. 08. 12

Appendix

<Grammar Modelling & Grammaticality: Variation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Full Name: _____ Nationality: _____

No	Examples	Choose 1 - grammatical & acceptable 2 - questionable 3 - ungrammatical & unacceptable			Specify your personal intuitive reasons about your choice.
		1	2	3	
1	I blame that we can't go on you.				
2	I blame on you that we can't go.				
3	Nobody expected that you could be so cruel of you.				
4	Nobody expected of you that you could be so cruel.				
5	I think it that John had an accident.				
6	I thought it that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for the filmmakers to sustain such a level of excitement through the rest of the movie.				
7	John thought it to himself that Mary was coming.				
8	I just love it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9	I just love that you are moving in with us.				